

'전주형 노인복지'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시, 보건·의료·일자리·여가·시설 인프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추진

전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보건·의료·일자리, 여가, 시설 인프라를 총망라한 전주형 노인복지를 본격 가동기로 했다.

시는 올해를 '전주형 통합돌봄'의 원년으로 삼고 노인복지 전 분야에 걸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체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8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850여 명이 병원 대신 자택에서 스스로 담당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 등 신규 보건 의료 서비스와 영양 도시락, 주거환경 개선 등 9개 분야 101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했다.

특히 거동 불편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전담 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진료, 약국 방문까지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연간 3000건 이상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아 향후 의료 접근 취약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질적인 이득과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부족한 돌봄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용



전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보건·의료와 일자리, 여가, 시설 인프라를 총망라한 전주형 노인복지를 본격 가동기로 했다.

한 '전주시 재능봉사 사업'을 통해 이미 용과 폐기구 처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20개를 지원한다.

또 434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취약 계층 노인 6523명에게 인부 확인 등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올해 30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주시 노인인구의 약 62.4%인 7만 7000여 명에게 지급된다.

자립이와 방문요양사 등 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전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공동체 사업단과 취업지원 사업을 병행해 노인들의 개별 역량에 맞춘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 및 치매 요양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11일 덕진구에 '이중노인복지관'이 정식 개관해 전주 동부권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덕진구 동부대로 부지의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촘촘한 복지 거점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노후 안전망'도 구축된다. 시는 거점 노인복지관 6개소 및 100개 경로당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술로 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양로시설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등 총 412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를 엄격히 운영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654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5억6500만 원 규모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5일까지 봄철을 맞아 총경로와 태조로, 노송광장, 덕진광장 등 17개 주요 노선에 배치된 가로화분과 테마화단에 크리산세뭇과 꽃양귀비, 비올라, 데이지 등 화려한 색으로 피어난 봄꽃 6종 10만 본을 식재한다.

10만 송이 꽃으로 물드는 전주

시, 화단·화분·정원 등에 다양한 봄꽃 식재

전주의 거리가 긴 겨울의 침묵을 깨고 화려한 봄의 색채로 살아난다.

전주시는 25일까지 봄철을 맞아 총경로와 태조로, 노송광장, 덕진광장 등 17개 주요 노선에 배치된 가로화분과 테마화단에 크리산세뭇과 꽃양귀비, 비올라, 데이지 등 화려한 색으로 피어난 봄꽃 6종 10만 본을 식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순수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크리산세뭇, 위안과 휴식을 뜻하는 꽃양귀비 등 특별한 의미를 지닌 꽃을 식재해 도심에 봄의 생기를 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단순한 꽃 식재를 넘어 다양한 디자인 식재를 통해 시민들이 출퇴근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견디고 피어난 봄꽃

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각 동 주민센터와 동물원, 한옥마을사업소 등에도 공공화단 등에 식재할 봄꽃을 전달해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봄의 숨결을 맡아 보고, 전주가 건네는 봄의 목소리를 오감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겨울내 양묘장에서 정성껏 키워낸 꽃들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길 기대한다"면서 "거리 곳곳에 심어진 꽃들은 전주라는 정원을 채우는 소중한 자선인 만큼, 꽃들이 온전한 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산불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나서

전주시, 주민대피 현장훈련 실시

전주시가 봄철 대형 산불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1일 완산구 원석구경로당 일원에서 시청 산림공원과 완산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산림재난대응단, 마을 주민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조경보 발령 중 최대 순간풍속 20% 이상의 강한 북풍이 불어 산불 확산이 민가로 급격히 확산하는 '초고속 산불'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당황

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훈련은 오전 9시30분경 완산구 덕천사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신고 접수와 함께 시작했다.

이후 시는 즉시 산불확산억제도에 기반해 단계별 재난문자를 발송(가정)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긴급 상황을 전파하며 주민들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1차 대피소(원석구경로당) 사전 이동 조치 △대피 명령에 불응하는 거주자에 대한 경찰 협조 기반 강제 대피 조치 등이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난 미비



전주시는 11일 완산구 원석구경로당 일원에서 시청 산림공원과 완산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산림재난대응단, 마을 주민 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점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즉각 반영하고,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운동목 전주 부시장은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로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풍을 동반한 극한의 산불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 가져

지난해 구성된 전주시 청년협의체가 2026년 첫 정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11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협의체 위원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과 2026년 전주시 청년정책 및 달리는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6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경제·문화·환경·인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청년협의체 관계자는 "청년 협의체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분기별 정례회의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 창구가 되겠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협의체 활동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년이 전주의 미래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청년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